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10. 18.(수) 10:00 < 10.18.(수) 석간 > 배포 2023. 10. 17.(화)

장관, 경제 단체와 소통 행보 이어가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수출 반등하기 위한 노사협력', '인재 양성, 인력 활용방안' 논의
- 한국경제인협회에 "혁신 통해 영향력 있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환골탈태" 당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 18.(수)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를 연이어 방문하여 하반기 수출 반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원팀 코리아'로서의 역할을 당부했다.

방 장관은 취임(9. 20.) 직후 중기중앙회를 시작으로 경제 6단체장과 이어가기(릴레이) 면담을 진행하며 실물경제 분야의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행보를 계속 이어갔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방문

방 장관은 경총을 방문하여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 미·중 갈등, 고유가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서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가 절실하다"라며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을 부탁하고, "기업 인재 양성과 청년·여성·은퇴자·외국인 등 다양한 인력 활용 정책에서 적극적인 이바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산업부도 정부와 기업은 한 몸이라는 자세로 경총과 소통하며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방 장관에게 "정부가 기업 활력 향상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힘써 주기를 당부드리며, 경총도 정부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경제인협회 방문

방 장관은 연이어 한경협 류 진 회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한경협 시대의 성공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강조하며, “한경협이 치열한 혁신을 통해 영향력 있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환골탈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첨단산업 투자 확대, 산업정책 및 전략 개발 등에서도 두뇌집단(싱크탱크)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류 진 회장은 “산업부의 수출확대 정책과 첨단산업 초격차 전략에 힘이 되도록 한경협도 해외 연결망(네트워크)을 완전가동해 민간 경제외교에 앞장서겠다”라고 화답했다. 이어 류 회장은 “한경협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두뇌집단(싱크탱크)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남경모 (044-203-4210)
		담당자	사무관	원성진 (044-203-4213)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산업일자리혁신과	책임자	과 장	양정화 (044-203-4220)
		담당자	서기관	이도안 (044-203-4224)
			사무관	김지은 (044-203-422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